

3 장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의 상황

A. 주제

승리(혹은 폭력)를 통한 평화 이외에는 (세상을 위해) 다른 program 는 없는가?
그 것은 정의의 통한 평화 program 인데 하느님의 종말론적 왕국이라는 대항적 program 이다.
또한 이 대변혁을 이루기 위한 중개자, 메시아의 도래 이야기

B. 문제점

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은 당시 로마제국과 하느님의 왕국의 충돌상황인데 처음에는 단지 '기독교안에서만' 이해되었고 또 '기독교와 유대교 안에서' 해석되어졌다.

C. 논점

- 로마의 제국적인 왕국
 - 1)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(= 신적인 존재) 칭호를 얻음.
 - 2) 군사력, 경제력, 정치력과 이데올로기적인 힘이 균형있게 통합됨.
 - 3)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황제의 칭호 : 신적인 존재, 신의 아들, 신에게 태어난 신, 주님, 구원자, 해방자, 구세주 등 ---
 - 4) 갓 태어난 아기예수에게 이런 칭호를 씀 → 무슨 의미?
 - 5) 종교 → 전쟁 → 승리 → 평화 = 로마의 제국 신학
신들을 예배하고 → 그신들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 나가고 → 그 신들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→ 그신들의 관대함으로 평화를 얻음
 - 6) 승리를 통한 평화 program
승리를 통한, 전쟁을 통한, 폭력을 통한 평화
질문 : 다른 program 은 없는가? → 대안적 비전 (alternative vision)

- 하느님의 종말론적 왕국
 - 1) 세상의 다섯번째 왕국 혹은 마지막 왕국, 또는 하느님의 왕국을 의미.
세상의 파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악과 불의와 폭력, 그리고 제국주의가 끝나는 것 → 하느님의 이세상 대청소 (Great Divine Cleanup of the World)
 - 2) 기원전 2 세기의 이스라엘의 시련은 '이스라엘과 시리아'의 문제가 아니라 '하느님과 제국'에 관한 문제로 인식해야하며
 - a. 처음 네 제국은 짐승들을, 마지막 다섯번째 제국만이 참으로 사람다운 모습을 보인다. (다니엘서 7 장)
 - b. 다섯번째 마지막 왕국 = 지상에 나타난 완성된 왕국.

로마제국과 비교하여 하느님의 종말론적 왕국의 vision 이 나타나게 된다. (“시빌의 신탁” 인용 P97)

- 이방인들의 운명
 - 1) 마지막 큰 싸움에서 이방인들을 멸절시킨다 (미가/므깃도 산)는 대답과
 - 2) 마지막 큰 잔치에서 회심한다(개종이 아닌 정의와 평화의 하느님께 회심)는 또 다른 대답이 있다.
 - 3)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승리를 통한 (폭력적) 평화인가, 정의를 통한 (비폭력적) 평화인가?
- 메시아의 도래
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두가지 사례
 - 1) 다윗의 아들 / 주 메시아 – 폭력에 대한 저항 → 로마인들은 회심보다는 멸절의 운명. 그러나 폭력적이지는 않다
 - 2) 하느님의 아들 /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 하느님의 백성과 더불어 영원한 왕국을 갖는다.
 - 3) 폭력 vs. 비폭력, 그리고 인간존재 vs. 초월적인 존재
- 나사렛 산등성이에서 본 로마제국의 지배
기원전 4 년 예수 태어남
헤롯왕 이후로 분쟁이 심해짐
세포리스 도시를 비롯해 인근 마을, 나사렛도 초토화 됨.
황무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화라 부른다
예수가 12 살 정도였을 때를 상상해 보는 마리아의 이야기 → 그 시대의 처절함을 느낄수 있다

D. 평가

-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을 1 세기 그 장소의 산물로서 이해해야 함 (배경이나 전경이 아닌 상황과 본문에 대해 말하려는 이책의 의도)
- 하느님의 왕국이 로마제국과 다른점이 무엇이며 예수가 태어날 즈음에 갈릴리 지역에 대한 로마제국의 잔인한 초토화 작업 상황에 대한 조명 (주, 신의 아들, 평화를 가져오신 분, 구세주)

E. 질문

- 승리를 통한 평화 vs. 정의를 통한 평화, 지금 우리의 삶에도 있을텐데, 어떠한 것들일까?
- 저자는 p105 에 ‘만일 당신이 승리를 통한 평화가 역사를 통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, 지금에 와서 그것을 버리겠는가?’ 고 질문한다. 여러분의 생각은?
- 하느님께서서는 어디에 계셨는가? 라는 마리아의 질문은(p108) 어떠한 의미일까?